**옳은 생각, 틀린 생각/ 케네쓰 해긴 발췌, 편집**

**​**

****

◇<생각의 방향>

어떤 것이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생각은

아무런 결과물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채 죽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요.

이성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요

방언통역에서

"믿음의 생각을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심령으로 하여금 패배에서 승리로 인도되도록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생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에 표준입니다.

빌0408. 끝으로 형제들아, 참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정직한(쎔노스: 존경, 공경할 만한,

장중한, 정직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적법한(디카이오스: 공정한, 흠 없는, 거룩한, 의로운)

것들은 무엇이든지, 순수한(불순물 없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프로스필레스:

친절한, 기쁘게 하는, 사랑스러운, 정다운) 것들은 무엇이든지, 좋은 소식에 속하는(유페모스:

칭찬하는, 칭찬할 만한, 좋은소식의) 무엇이든지, 만일 어떤 미덕(아레테: 남자다움, 용맹,

탁월함, 칭찬, 미덕, 도덕적 선양)이 있으면, 또 만일 어떤 칭송(에파이노스: 칭송, 찬양,

찬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숙고하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리게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The Great Confession) 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고백'이란 단어의 뜻을 정의 해보면,

첫째, 고백은 우리가 믿는 것을 확신(affirm)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증언(testifying)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witnessing)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사탄의 패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한, 살아있는 실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믿고 그것이 진리이며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경험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재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약속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to be so)

고백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이미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삶에서 그것이 실재가 되려면

당신이 그렇다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담대히 고백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당신은 합법적으로 당신에게 속한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사야 41:10 같은 성경 말씀을 펴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항상 강하게 하시며 당신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나를

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우울한 구름 아래 있다고 느끼면,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므로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백,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울한 구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생각과 바른 고백과 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울한 구름이 우리를 떠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

그릇된 생각은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혼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릇된 생각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안에서 그들의 합당한 위치에 서서

그들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엡0422. 그렇다면, 예전의 생활 양식에 관하여, 너희는 낡은 사람을 벗어 버리라.

그것은 속이는 욕정들을 따라서 썩느니라.

엡0423. 그리고 너희 정신의 영(靈)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라.

엡0424.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는 하나님을 좇아 '법적 깨끗함'과

참 거룩함 가운데서 창조되느니라.

엡0425. 그러므로 거짓을 치우고,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과 진리(진실)를 말하라.

이는 우리는 서로간에 지체들임이라,

엡0426. 너희는 화를 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태양으로 하여금 너희의 분노

위에서 내려가게 허용치 말라,

엡0427. 또한 마왕에게 자리을 내주지 말라.

“이 말은 '마귀가 네 안에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말은 네가 허락하지 않는 한 마귀는 네 안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네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귀를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여놓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하고 묻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영과 혼과 생각에 자리잡게 한다면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요

1요010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의가 두터우시고 적법하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시고, 또 온갖 법적 불결(不潔)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이 하시느니라.

1요0201. 내 어린 자녀들아, 이들의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쓰노니, 그러면 너희가 죄짓지

않느니라, 또 만일 누가 죄(빗나감)를 지으면,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중재사(변호사)를 가지고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법적으로 깨끗하신 분(합법적이신 분)'이시니라.

사4325. 나, 바로 나는, 내 자신을 위해 네 법적 벗어남들을 지우는 자니,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라,

사4326. 나를 생각(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호(항변, 변론, 답변)하자,

너는 분명하게 밝히라, 그러면 네가 적법하다고 여겨질 것이니라.

▷마귀의 생각

과거에 누가 나를 잘못 대접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 과거의 죄들, 과거의 실패들 정죄와

죄의식, 의심,  두려움, 걱정과 근심, 부정적 측면의 생각, 자살하려는 생각, 용서하지

못하는 생각

▷하나님 말씀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 그리스도안에서 더 높은 부르심으로 달려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0310. 그분의 사망에까지 같은 모양으로 되어서, 내가 그분을, 그분 부활의 권능(성령의

권능/ 뒤나미스: 힘, 능력, 권능, 권력, 세력)을, 그분 고난들에의 같이하기(코이노니아:

동료의식, 참석, 상호교류, 교제, 공동체)를 알 것이니라③,

빌0311.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면 좋으련만!

빌0312. 마치 내가 이미 도달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그것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붙잡혔던 그것을 나 역시 붙잡을까 하여,

내가 좇아가느니라.

빌0313. 형제들아, 내 자신이 붙잡았다고 내가 여기지 않느니라, 대신에 뒤에 있는 그들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들의 것들에로 손을 앞으로 뻗치면서(에페크테이노마이:

손을 앞으로 뻗치다, 뻗다), 이 한가지 것을 내가 하느니라.

빌03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높은(아노: 위로, 꼭대기에, 위에, 가장자리에,

높이, 위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賞, 브라베이온: 중재의 상급, 공중오락의 상, 상급, 보상)을

위한 과녁(표적, 목표)을 향해서 내가 밀고 나가느니라.

빌0315. 그러므로 완전해진 많은 이들인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이 생각을 품자, 그리고 만일

어떤 것에서 너희가 달리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느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요

롬120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동정심(오이크테이로:동정,자비,연민)들을

통해 이를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곧,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게 너희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사리에 맞는(분별있는) 예배이니라.

롬1202. 그리고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대신에 너희 정신(생각)을 갱신(更新,

복원)함으로 너희는 변형되라, 그러면 무엇인 선하고 받아들여질 만하고 완전한 것인지 곧

하나님의 뜻인지 너희가 입증할 수 있으리라,

세상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의 말씀은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요

자기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다고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교회에서,

주님은 나를 다루시어서 말하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까지도 세상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질병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생각하고, 의심을 생각하고

좌절을 생각하며, 실패를 생각합니다, 꼭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십시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생명보다는 죽음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거나, 말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말들의 산물입니다.

잠1213. 사악한 자는 그의 입술의 법적 벗어남에 의해 덫에 잡히나, 적법한 자는

어려움에서 나오느니라.

잠1214.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에 의해 선(善)으로 만족되느니라.

그리고 사람 손들의 보상은 그에게 반제되느니라.

잠1215. 바보의 길은 그 자신의 눈 안에서 올바르니라.

그러나 조언에 경청하는 그는 지혜로우니라.

잠1216. 바보의 분노는 이내 알려지느니라, 그러나 신중한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잠1217. 진리를 말하는 그는 '법적 깨끗함'을 내보이나,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내보이느니라.

잠1218. 검의 꿰찌름들과 같이 말하는 이가 있느니라,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건강(히브리어 마르페: 치료, 양약, 건강)이니라.

잠1219. 진리의 입술은 영원히 공고히 되느니라,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혀는

단지 잠시동안이니라.

잠1220. 악을 상상하는 자들의 마음 안에는 속임수가 있느니라, 그러나 화친[강화(講和)]

의 조언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잠1221. 적법한 자에게 아무런 악이 일어나지 않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해악으로 채워지느니라.

잠1222. 거짓말 하는 입술은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나,

참되게 다루는 그들은 그분의 기쁨이니라.

위의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건강과 치유가 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건강을 말합니다. 마귀의 일에는 나는 흥미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패배나 질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탄의 능력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사람들이 담배로부터, 술 마시는 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흡연과 음주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잘못된 것은 걱정의 죄를 저질르고 있습니다.

걱정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환경의 상황을 보고 걱정합니다 그들은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내가 너를 넘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너를 빙 돌아서 성공할 것이다

나는 너를 뚫고 나가 성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웃는 동안 상황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 질병이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분은 이것들보다 크십니다

이것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천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찬양 ,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시230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곤궁하지 않느니라.

시2302. 그분께서 나를 초록의 목초지들에서 눕게 하시며, 그분께서 나를 조용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시2303. 그분께서 내 혼(魂)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분 이름의 권위(쉠: 호칭이름, 명예, 권위,

명성, 기초)를 위해서 그분께서 나를 '법적 깨끗함'의 길들 안에서 이끄시느니라,

엡0422. 그렇다면, 예전의 생활 양식에 관하여, 너희는 낡은 사람을 벗어 버리라. 그것은

속이는 욕정들을 따라서 썩느니라.

엡0423. 그리고 너희 정신의 영(靈)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라.

엡0424. 그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는 하나님을 좇아 '법적 깨끗함'과

참 거룩함 가운데서 창조되느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몸과 변화된 마음을 요구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빛 가운데로 행하여 사단을 향한 당신의 최고의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Tags

생각 말 혀